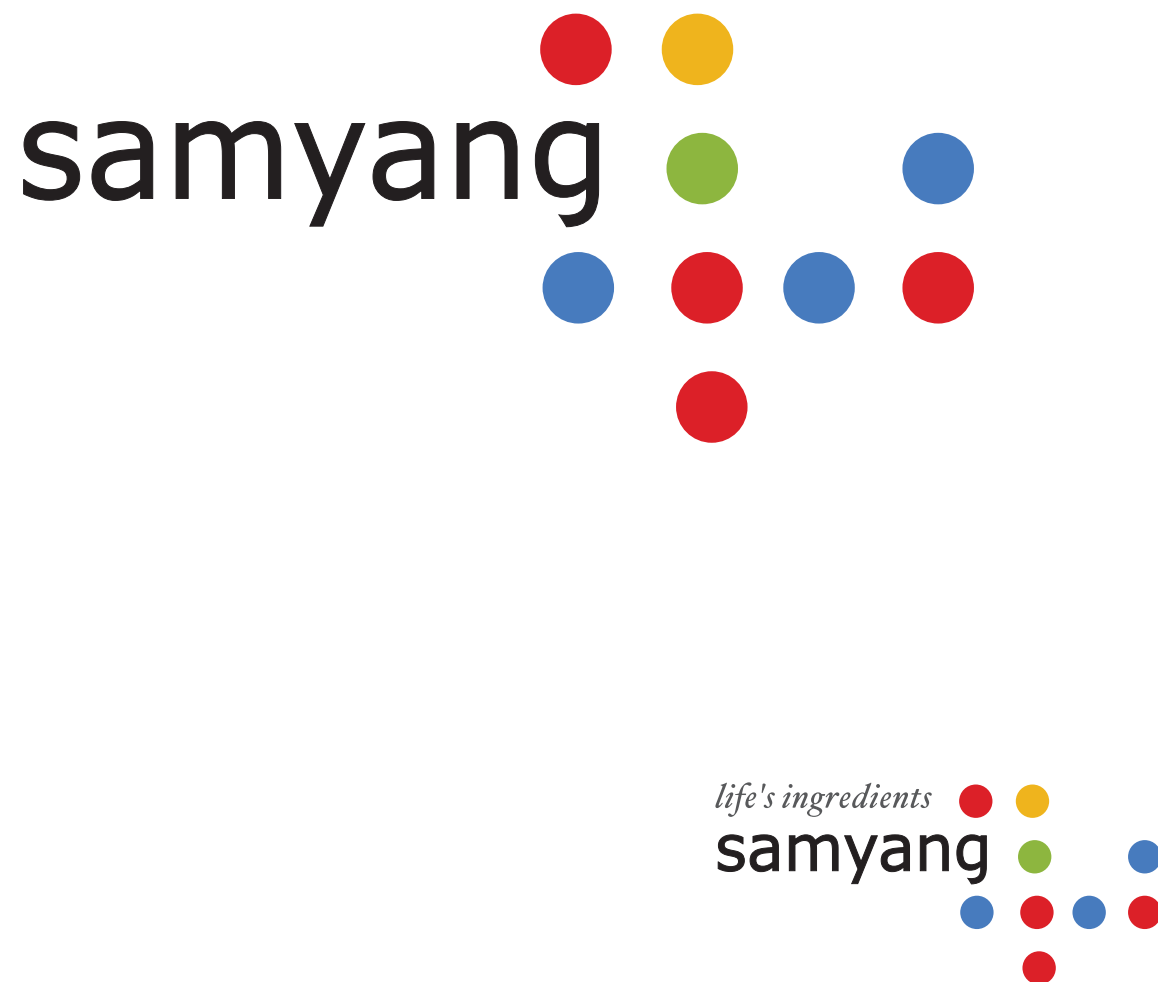


당신은 지금,
새로운 삼양을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앞에도 당신의 옆에도 당신의 뒤에도
새로운 삼양이 있습니다. 지난80년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 온 삼양!
이제 새로운 얼굴,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 곁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당신의 삶 그 안에, 삼양이 있습니다.



삼양의 'Life's Ingredients'는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를 의미하며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筆巖書院 山仰會報

◇目次◇

- | | |
|--------------------|-----------------------|
| 1. … 就任辭 | 10. … 筆巖書院 消息 |
| 2. … 大學講義跋 | 13. … 山仰會 消息 |
| 5. … 大學講義跋文에 대하여 | 15. … 늙음과 낡음 |
| 6. … 七夕賦 | 16. … 山仰會任員 名簿 |
| 8. … 混沌酒歌 | 18. … 山仰會員 名單 |
| 9. … 河西 金文正公을 思慕하며 | 24. … 誠金內譯 및 新入會員 환영 |



仁宗이 하사하신 墨竹圖의 관각을 보관하고 있는 敬藏閣. 譯文은 正祖大王의 어필이다.

(515-812) 全南 長城郡 黃龍面 筆岩里 377, 電話: 061-394-0833
發行人: 山仰會長 朴鍾達 編輯主幹: 金梓洙

筆巖書院 山仰會

취임사(就任辭)

山仰會長 朴鍾達

지난 얼마 전 本 山仰會 會長 安晉吾 博士의 任期滿了로 不足한 이 사람이 그 重責을 맡게 되어 甚히 悚懼하고 念慮스러운 마음 禁할 수 없습니다.

孔夫子께서 말씀하시기를 人能弘道 사람이 能히 道를 크게 한다 하시었습니다. 이 말씀은 道가 스스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勞力에 의하여 發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道의 盛衰興替가 時運에 따라 그 難易도는 다를 수 있으나 結局 사람들의 自體勞力에 의하여 發展하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인 것입니다. 우리 山仰會는 河西先生을 崇奉하는 團體입니다. 先生은 湖南出身으로 文廟에 配享된 東方의 大賢입니다. 그 自吟詩에 天地中間 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이라는 한 句節만 보아도 先生의 學問과 思想과 抱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正祖大王께서 이르기를 先正 河西는 我東周子요 湖南의 洙泗라 하시면서 위로는 程子の 창명한 서업을 규지하였으며, 아래로는 文純 文成이 개발한 공업을 계도하였으니 경양하는 마음이 백대가 동떨어져도 더욱 간절하다 하시었고, 尤菴先生께서 이르기를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 道學과 節義와 文章을 모두 갖춘 河西 金先生을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였다.

그 밖에 여러 현인들의 讚辭는 여기에서 列舉하기 어렵습니다. 孟子의 말씀에 使先覺으로 覺後覺이라 하신것은 先覺者들로 하여금 後覺者들을 깨닫게 함이니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後覺者들로 하여금 先覺者들을 배우라는 말씀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山仰會가 先生을 崇奉함에 있어 두 가지 目的과 方法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對內的으로 講會를 열어 先生의 學問과 思想과 節義와

文章을 研究琢磨하고 다른 하나는 對外的으로 會報를 發刊하여 弘報宣揚하여 世道를 붙잡고 斯文振作에 貢獻함으로써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의 現實을 돌아보면 西歐의 物質風潮에 밀려 우리 東洋의 傳統文化가 거의 抹殺地境에 이르러 人倫道義는 땅에 떨어지고 不正과 非理와 淫亂과 暴力이 亂舞하는 暗黑時代로 빠져드는 이 時點에서 우리 儒林이 坐視傍觀하고 奮發再起하지 않는다면 極度로 衰微해진 斯文一脈을 누가 붙잡고 이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易經에 이르기를 二人同心 其利斷金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可能하기 어렵고 여러 회원님들의 衆志를 모아 一致團結하여 邁進함으로써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強調하고 싶은 것은 孔夫子의 말씀에 溫故知新이라 하시었습니다. 옛것을 간직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變化의 時代에 살고 있습니다. 東西文化가 交流되고 新舊學說이 交差하는 이 마당에 어느 한 쪽에만 偏重하고 偏廢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켜야 할 우리의 傳統文化를 固守하면서 새 時代의 潮流에 副應하는 것이 溫故知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會員님들은 山仰會의 儒林으로서 肯志와 自負心을 갖고 不屈의 意志로 萬難을 克復하고 昏衢秉燭의 精神과 人能弘道の 使命感으로 河西 先生의 學問과 思想을 研究琢磨하여 斯文振作에 寄與하고 世道를 붙잡는 指針과 礎石이 되어줄 것을 거듭 付託드리고 끝으로 會員님들의 健勝을 빌면서 간단히 就任辭에 갈음합니다.

2004년 筆巖書院 山仰會長

大學講義跋

河西 金麟厚

朱夫子가 노상 말하기를 “평생 공부가 대학에 있다.” 하며 그 글에 대하여 章句도 만들고 或問도 만들었으니 다 그 뜻을 밝명하자는 까닭이며 또 講義 한 편을 지은 바 있으니 이는 주부자가 寧宗의 講官이 되었을 때에 편집하여 올린 것이다.

삼가 이 편을 읽어보니 대개는 다 장구나 혹은 문 속에 든 말로서 간혹 자세하고 간략한 차이는 있으나 그 命義와 立說은 대체에 관련되고 일용에 절실하지 않음이 없어 평이하고 명백하며 온화하고 급박하지 아니하니 비록 감히 깊고 멀다고 선뜻 말하지도 못하겠지만 이른 바 깊고 멀다는 것도 실상 그 가운데 들어 있지 않은 바 없으니 優遊涵泳하면 자연 사람으로 하여금 얻은 곳이 있게 한다.

첫머리에 小學大學의 뜻을 말하고 다음으로 天性 人倫의 本然과 氣稟 物欲의害됨과 고금의 학술이 다름과 聖愚의 生質이 갈라짐을 잇대어서 책을 펴면 일목요연하므로 講說을 기다릴 것이 없으며 그 임금의 덕에 나아가는 면이나 학자의 공부상에 있어 순순히 開導하여 간절하고 지극하다 하겠다.

이러테면 經文을 논한 전후 兩章의 結語 및 그 총설, 그리고 明德 新民의義이며 克明, 顧諟 湯盤 衛詩의 旨를 條陳하고 총괄하여 통쾌히 발명한 것이 或問에서 다한 바 아닌 점이 있으며 舊邦을 새롭게 하는 한 마디는 중점을 임금의 한 몸에 돌리어

警策하고 격려하여 남김없이 발휘하였고 誠意의 한 장에 이르러는 따로 訓義를 만들어 정녕하고 반복하여 더욱 더 자상하고 조밀하였다.

대개 明德이란 것은 하늘이 사람에게 命한 이치로서 사람이 그 이치를 얻어 마음에 갖춘 것이다. 그 命됨이 미상불 밝기 때문에 그 德됨도 또한 미상불 밝으며 그 體됨이 미상불 선한 때문에 그 用됨도 또한 미상불 선한 것이니 至善이라 이른 것은 밝음의 극치이다.

바야흐로 그 未發에 있어서는 寂然히 움직이지 아니하여 치우치거나 기대는 바 없음으로써 한 몸의 主가 되나니 이른바 仁義禮智의 性이 그 體를 세워서 만 이치가 한 근원이란 것을 알 수 있고 급기야 發해서는 느낌에 따라 응하여 틀어지고 어긋나는 바 없이 천하의 일에 통하나니 이른바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붕우의 道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용모 舉止 衣食의 절차가 그 用을 달성하여 만물의 각기 지닌 이치를 볼 수 있다. 그 각기 지닌 이치란 곧 한 근원의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루어 가면 通하지 않음이 없고 나가보면 있지 않음이 없나니 本然의 體는 순수하고 至善하여 처음에는 조금도 다름없으나 그 物에 命함에는 理가 氣의 안에 떨어지게 되며, 理는 明暗이 없지만 氣는 通塞이 있고 質은 偏正이 있으며 通의 속에도 淸濁이 있고 正의 속에도 純駁

이 있으며 그 이른바 淸이며 이른바 純이란 것도 절정에까지 다 이르러 가지 못하면 털끝 만한 사욕이 들어서 더럽힐 수 있다.

理는 氣에 가려짐이 되고 知는 物에 혼미하게 되어 本體의 밝음이 능히 그 善을 다하게 되지 못할 경우가 있다. 善을 밝히고자 할진대 오직 知에 달려 있으니 그 氣稟과 物欲의害됨을 제거하여 天理의 밝음을 도로 찾자는 것이다.

그 이르되 “知가 지극하지 않음이 없으면 그 시비득실에 대해 털끝 만한 것도 능히 가려낼 수 있음과 동시에 마음의 발로된 것도 곧은 선하고 속은 악한 폐단이 없으며 이로써 속에 주장이 있고 의거할 땅이 있어 隱微한 사이에 謹獨을 다한다”라 한 것은 그 말과 뜻이 더욱 精切하다 하겠으니 털끝에서도 분석을 한다면 갓춘 바의 이치를 신묘히 하여 그 응하는 物을 주재할 수 있고 은미에서도 謹獨을 다하면 그 고유의 善을 體받아서 그 본연의 밝음을 보전할 수 있다. 때문에 夫子가 이를 자상히 함으로써 이른바 급선무라 한 것이다.

正心 이하는 비록 이 편에서는 미치지 못한 바이지만 마디마디의 공부도 또한 각기 차례가 있어 하나만 빼놓아도 안될 것이 있으니 大學에 종사하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經傳의 正文에 나아가 글자글자 글귀글귀를 逐節逐章하여 익히 읽고 자세히 맛들이며 검하여 이 편 및 장구와 혹문을 가지고 參互考 하여 힘을 많이 써서 融會貫通하여 그 다 풀리지 못한 것을 窮究할 수 있다면 이른바 “大學의 道가 글에 있지 않고 내게 있다.”라는 것이 진실로 그 필연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 傳文을 넓게 상고하여 일에 따라 체험 관찰해서 실지로 그 공을 이룩한다.”라 이

른 것은 학자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대개 넓은 상고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으기 논하건대 仁義禮智의 덕은 하늘이 명한 性이요, 人倫 日用의 常은 性을 따르는 道이며 그 形氣의 私를 버리고 본연의 正으로 돌아오는 것은 도를 닦는 教이며 格物致知하여 그칠 데를 아는 것은 이 道를 아는 것이요 定靜安慮하여 그 뜻을 진실하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기 몸에 지닌 연후에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은 이 道를 體하는 것이요 알지 못해서는 반드시 그 다하지 못한 것을 다하고 이미 알았으면 반드시 그 지극하지 못한 것을 지극하게 하며 결단코 惡을 버리고 기필코 善을 하며 속은 곧고 곧은 모나서 사람이 감히 바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道를 강하게 하는 것이요 戒愼과 恐懼는 공경하여 이 道를 얻는 것이요 放僻과 사치는 함부로 하여 이 도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원을 함양하여 그 精明을 이루어 이치를 궁구하는 근본으로 삼는 것은 진실로 敬의 한 글자에 벗어나지 않는 동시에 夫子의 小學인 이 한 글이 아니면 단단히 지키고 굳건히 정하여 大學의 根基를 삼을 수 없으니 초학자에 있어서는 먼저 이 글을 講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그 이른바 敬이란 것은 마침내 한 마음을 주재하고 明德을 밝히는 강령으로서 聖學의 始終이 되는 것이니 同志의 선비들은 다 같이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嘉靖 己酉 이월 甲子 河西 후학 金麟厚書
(辛鎬烈 번역)

원문(原文) 후면참조

…… 大學講義跋 原文 ……

朱夫子常自言平生用專在大學而於其書有章句有或問皆所以發明其義而又有講義一篇乃夫子爲寧宗講官時所編進者也

伏讀其篇大概皆章句或問中語而間有詳略其命義立說無不關於大體切於日用坦易明白雍容不迫雖未敢驟語以深遠而所謂深遠者實未嘗不在其中優游涵泳自令人有得處

首言小學大學之義繼之以天性人倫之本然氣稟物欲之爲害古今學術之異聖愚生質之分開券了然無俟講說其於人君進德學者工夫循循開導勸懇切至

有若論經文前後兩章之結語及其總說與夫明德新民之義克明顧諟湯盤衛詩之旨條陳總括發明痛快有非或問之所盡者新舊邦一節歸重於人主之一身警策激勵無復餘蘊至於誠意一章則別爲訓義丁寧反復益加詳密蓋明德者天之所以命乎人之理而人所得以具於心者也其爲命未嘗不明故其爲德亦未嘗不明其爲體未嘗不善故其爲用亦未嘗不善至善之云者明之極也

方其未發寂然不動無所偏倚以爲一身之主所謂仁義禮智之性有以立其體而萬理之一原者可知矣

及其發也隨感而應無所乖戾以通天下之故所謂君臣父子兄弟夫婦朋友之道視聽言動容止衣食之節有以達其用而萬物各具之理可見矣各具之理卽一原之理也故推之而無不通卽之而無不在本然之體純粹至善初無少異而其命於物也

理不能不墮於氣理無明暗而氣有通塞質有偏正通之中有清濁焉正之中有純駁焉其所謂清所謂純者有未到十分盡處則一毫之私得以累之理爲氣蔽知爲物昏而本體之明有不能極其

善欲明乎善惟在乎知所以去其氣稟物欲之爲害而復乎天理之明而已其曰知無不至其於是非得失皆有以剖析於毫釐之間而心之所發無外善內惡之弊所以有主於中有地可據而致謹於隱微之間者其語意尤爲精切剖析於毫釐則有以妙其所具之理而宰其所應之物致謹於隱微則有以體其固有之善而全其本然之明夫子之所以致詳乎此而所謂當務之急也

正心以下則雖此篇之所未及而節節工夫亦各有次第有不可闕一者慾從事於大學者必先就經傳正文字字句句逐節逐章熟讀詳味兼取此篇及章句或問參互考用力之多而融會貫通有以究其不盡釋者則所謂大學之道不在於書而在於我者信有以見其必然矣

其曰博考傳文隨事體察而實致其攻者自學者言之蓋不但博考而止耳

竊嘗論之仁義禮智之德天命之性也

人倫日用之常率性之道也

其所以去其形氣之私而歸于本然之正者修道之教也

格物致知以知止所以知此道也

定靜安慮而誠其意正其心實有諸己而可推以及人者所以體此道也

未知之必盡其所未盡已知之必至其所未至去惡之決而爲善之必內直外方而人莫敢不正者所以強此也

戒愼恐懼敬而得此道者也

放僻邪侈肆而失此道者也

涵養本原致其精明以爲窮理之本者固不出乎敬之一字而非夫子小學一書無以持守堅定以爲大學之根基在初學有不可以不先講也若其所謂敬者乃所以主宰乎一心綱領乎明明德以爲聖學之始終者同志之士相與勉之

嘉靖己酉二月甲子河西後學

金麟厚謹書

大學講義跋文에 대하여

本會 책임연구위원 朴來鎬

淺學菲才한 나의 식견으로 河西선생께서 쓴 大學講義跋文을 감히 설명한다면 1, 2, 3으로 구분하고 싶다.

첫머리에서는 朱夫子께서 大學에 있어 章句 또는 或問을 쓰고 이어 講義를 썼는데 章句와 或問보다도 講義의 내용이 분명함을 더하고 있다며 찬미를 아끼지 않았다.

중간에서는 先生께서 느낀 바를 유감없이 서술하였는데 즉 明德은 하늘이 인간에게 특별히 준 理로 인간은 그 理를 받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하였으며 至善이란 明德을 완전히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그 明德이 밖으로 발현하기 이전에는 고요하기만 하여 조금도 치우침이 없어 온 몸을 주재하고 있으면서 이른바 仁義禮智의 성품을 제각기 발휘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있으니 온갖 이치의 근원은 하나(萬理一原)라는 것을 알 만하다고 하였다. 또 理와 氣에 있어서는 금수와 곤충에게 하늘이 理와 氣를 같이 할 수 없게 하였다. 理는 밝음과 어둠이 없지만 氣質은 관통과 막힘, 치우침과 정대함이 있다. 氣가 관통한 가운데도 淸과 濁이 있고 정대한 가운데도 純과 駁이 있는 것은 그 바탕이 백프로 淸純하지 않았을 경우 하나의 털끝만한 사욕의 공격을 받아 理가 氣에 의해 가려지고 지혜가 물욕에 의해 혼미하여 그 본래의 밝음이 능히 至善이 될 수 없으니 善에 밝고자 하는 방법은 오직 방해되는 물욕을 모두 버리고 天理의 밝음을 회복할 뿐이라고 하

였다. 다시 언급하자면 知가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 是非와 得失을 털끝만한 것까지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이 밖으로 발현됨에 있어 外善內惡이라는 폐단이 없을 것이며 마음속에 갖추어진 理가 감응된 바의 물건을 주재할 것이요 隱微한 곳에서도 삼간 것이 극진하다면 固有의 善을 잘 간직하여 그 本然의 밝음을 온전히 한다고 하였다. 正心 以下の 공부 역시 그 차례를 하나도 빼놓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겸하여 講義와 章句 或問에 많은 힘을 쏟는다면 知가 관통되어 해석되지 않은 것까지도 연구가 될 것이니 大學공부의 道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仁義禮智의 德과 人倫日用의 몇몇함과 形氣의 사사로움을 버리고 본연의 正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戒愼 恐懼 공부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敬字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만일 朱夫子께서 편집하신 小學이 아니면 이를 굳게 지켜 大學의 뿌리로 삼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시면서 初學者 또는 뜻이 같은 선비들에게 힘써 이 講義를 먼저 읽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부끄럽게도 筆者는 삼십여 성상을 筆巖書院에 중사하였건만 先生께서 이 글 속에 심오한 性理哲學을 담아놓은 것을 미처 몰랐다. 文廟從享 당시 正祖를 감동케 한 天地中間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이라는 先生의 詩가 곧 이 跋文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칠석부(七夕賦)

河西 金麟厚

저녁이라 가을 바람 으스스 불어오고
하늘은 활짝 열려 유달리 드높아라
밝은 빛이 돌고 도는 저 은하를 쳐다보고
아름다운 명절이라 칠석을 느끼었네
아마도 좋은 배필 반가운 모임이라
늦게나마 그윽한 기약을 맺겠구먼
찬란한 구름치마 매만져 입고
꿈틀꿈틀 푸른 용을 잡아타고서
천진을 바라보며 사뭇 달리니
나는 바빠 건너편다 저 오작교를
앞길이 차츰차츰 가까워지자
미인이 날 맞아줄 일 기쁘군 그래
계전이라 이슬방울 하얗게 엉겨
밤은 맑고 서늘하니 잠조차 없네
선거를 마주잡고 서경거리며
백 가지에 하나나마 회포를 푸세
방화는 시들기가 아주 쉬운 것
이별은 왜 이다지도 빠르단 말고
서글피 서로 대해 한숨 지으니
서로 달는 저 달이 원망스러워
천계가 날개 치며 새벽을 재촉하니
오래도록 머물자도 머물수 없는 신세
긴 생각에 잠기어라 실의의 모습
마음이 사뭇 닳아 닳을 잃었네
맑은 바람 다다라 이별을 차마 하리
쏟아지는 눈물만이 두 갈래로 떨어지네
구름은 아득아득 바다 빛이 떠오르고

秋風颯以夕起
玉宇廓其崢嶸
瞻雲漢之昭回
感佳節之載名
念良匹之好會
結幽期於歲晚
披雲裳之陸離
駕蒼龍之蜿蜒
望天津而驟驅
云余濟乎靈橋
喜前途之漸邇
欣美人之我邀
露凝華於桂殿
夜清冷而無寐
接仙裾而容與
輸百端於一二
愁芳華之易歇
恨別離之多時
悵相對而戲
怨望舒之西馳
天鷄搏翼而催晨
羌不可乎久稽
悵悵以永懷
心嬋媛而魂迷
臨清風兮不忍別
渙雙涕兮橫迸
雲蒼茫兮海色騰

두 눈은 가물가물 갈 길은 멀고멀어
 떠나간 영수님을 그리노라니
 날 갈수록 내 설움이 불어 나누나
 금북은 게을러서 베도못 짜고
 소는 홀로 하수 가에 물을 마시네
 한 해가 가고 나면 기약있으니
 굳은 맹세 간직하며 변할 줄 몰라
 하느님의 후하신 은덕을 입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철도 바뀌어라
 더더구나 천지는 장구하거니
 회합의 때아팔로 얼마나 많나
 멀리 떠난 수졸의 아내라던가
 이역에 귀양사는 신하들 보면
 남편이 못 돌아와 슬퍼만 하고
 영절된 임 그리워 눈물을 짓네
 죽어도 한이남아 소리 삼키니
 어찌 이와 같다고야 할 수 있으리
 천손이라 하고에게 당부하노니
 이별이 오래간다 슬펐랑 마소
 창공 우러르니 너무나 멀고
 인간 세상 동떨어져 아래 있으니
 이곳 저곳 상관이 전혀 없는데
 뉘라서 이 모임을 엿본단 말고
 괴이타 그 누구는 뗏목을 타고
 홀로 물을 거슬러 구경했는지
 끝끝내 분변 없어 아득만 하니
 나는 다만 진위에 두어둘밖에

目眇眇兮路脩
 思靈脩兮去莫留
 日復日兮增余悲
 金梭倦而莫御
 牛自飲兮河之湄
 還三百之有期
 保貞盟而不渝
 荷皇天之厚德
 尙時月之屢徂
 況天長而地久
 亦會合之多辰
 彼遠戍之思婦
 及絕域之放臣
 哀良人之不返
 泣君王之永絕
 死遺恨而吞聲
 夫豈此乎一列
 願天孫與河鼓
 莫悵悵於久別
 仰蒼穹兮遼迥
 竚塵之喧卑
 事悠悠而莫涉
 誰此會之能窺
 怪乘槎兮何人
 獨溯流而浪觀
 終茫茫兮莫辨
 吾將置之於眞贋之間也

(신호열 번역)

혼돈주가(混沌酒歌)

긴 노끈으로 저 해 잡아매긴 어려우니
큰 돌로 푸른 하늘 때워볼까 생각했네
빳나간 꾀 이뤄지리 낙착한 신세로서
반 세상이 잠깐이라 늙어 웅이 되었다오.
어찌 내 혼돈주를 싫도록 마시고서
당우 때와 마주앉아 수작함만 하오리까
혼돈주 있다는 걸 사람이 알까부냐
이 법이 저 부구님 그로부터 전해왔네
백이와 유하혜의 두 사람 중간에서
현도 아닌 성도 아닌 천연의 그대로라
국군을 서로 불러 독 밑에 가둬두니
밤낮으로 기운 붙어 괴는 소리 부글부글
얼마 뒤에 봄물이 비를 띠어 흐려진 양
농창 익은 옛 빛깔이 맑고도 짙으구려
함박잔 가득 부어 부구님께 읊을 하며
만고라 불평에 찬 가슴을 씻어 내리네
한 번 마시니 문득 신령이 통해져서
우주가 열리련다 오히려 몽롱하고
두 번째 마시니 자연과 어울려라
혼돈을 도주하여 홍몽을 뛰어나네
손 들어 혼돈의 세상에 춤을 추고
귀로는 혼돈의 바람을 듣는다오
넓고 큰 취향엘 나 끝내 와 있으니
이 벼슬은 천작이요 인작이 아니로세
어디다 쓰오리까 구구한 저 두건을
도연명도 역시나 지리한 사람일지

河西 金麟厚

長繩難係白日長
大石擬補青天上
枉圖謬算坐溲落
半世倏忽成老翁
豈如飲我混沌酒
坐對唐虞談笑中
混沌有酒人不識
此法遠自浮邱公
不夷不惠全其天
非賢非聖將無同
相呼麴君囚瓮底
日夜噫氣聲蓬蓬
俄傾春流帶雨渾
醞釀古色清而濃
酌以巨瓢掛浮邱
洗下萬古崔嵬胸
一飲通神靈
宇宙欲闢猶朦朧
再飲合自然
陶鑄混沌超鴻濛
手舞混沌世
耳聽混沌風
醉鄉廣大我乃至
此爵天爵非人封
何用區區頭上巾
淵明亦是支離人

(신호열 번역)

河西 金文正公을 思慕하며

山仰會 常任副會長 金容淑 謹作

하늘이 도우사 海東에 한 분 내셨으니
우리 先正文正公 河西선생이시여
그 尊名 영원하고도 높도다.
역사에 수없이 명멸한 별들이 幾何이더뇨?
그 중에 道學, 節義, 文章에 한가지로 겸비한이
오직 한 분이라네

道學으로는 東方의 周濂溪요
천년 바위와 올곧은 대나무는 相補의 節義이며
文章으로 人生과 自然의 위대한 哲理를 꿰뚫었도다.

그 姿態 仙界의 神人이라
하늘에 이는 한 점 淸風이요
맑은 호수에 떠오르는 한송이 芙蓉일지라

어려서는 神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셨거니와
하늘이 둥글어 끝간데 없다 하셨으니
일찍이 宇宙의 原理에 관심이 깊으셨고

三十에 世子를 가르치서
王道政治 구현하여 참 세상 만들어보자던
굳은 言約 墨竹圖에 千年 서려
不義에 秋霜같고, 人情에 가슴 저미는
仁義禮智 具現에 큰 뜻 품었거니

하 애닦다
세상이 큰 뜻을 저버리니
卵山에 통곡소리 홀로 계시도다

天命圖, 太極圖로 萬物의 生成과
天人合一을 갈파하였으니
가히 하늘의 調和로다

사람의 道理와 선비의 갈 길을
窮究하여 後世를 가르치니
흠모하여 따르는 이 구름같구나

文廟에 配享되고 靑史에 길이 새겨
오늘에 이르러니
그 뜻 더욱 찬연히 빛나네

아, 河西선생이시여!
빛나는 光彩 永遠無窮하소서
歲歲年年 充滿하소서



▶ 筆巖書院 春享祭 奉行

2004년 3월 9일(음 2월 19일) 河西先生과 梁鼓巖을 추모하는 春享祭가 필암서원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春享에는 柳漢相 성균관 고문, 朴鍾建 山仰會長, 金興植 장성군수, 金英 文正公 都有司, 金達洙 人宗會長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유림과 후손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초헌관에는 朴秉濠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아헌관에는 任龍享 유림이, 중헌관에는 楊正旭 유림이 맡아서 경건하게 거행하였다.

춘향제를 마친 후에는 淸節堂에서 초헌관을 맡았던 박병호 교수가 河西先生이 經筵과 世子시강원에서 講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서 강연하였다.

▶ 筆巖書院 秋享祭 올림

甲申年(2004년) 9월 25일(음 8월 12일) 河西先生과 梁鼓巖을 추모하는 추향제가 필암서원 佑東祠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유림과 후손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봉행되었다.

高麟祚 釜山유림 대표의 집례로 대축관에 許鎬九 충남 유림대표, 초헌관에 崔根德 성균관장, 아헌관에 金仁煥 전북유림 대표, 중헌관에 宋基喆 永歸書院長이 맡아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柳漢相 성균관 고문, 金興植 장성군수, 金英 문정공 도유사, 金達洙 대종회장 등이 참여하였다.

추향제가 끝난 뒤에는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性理學的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는데, 18현 가운데서도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고루 갖춘 분으로 평가되고 있는 河西先生이 태어난 長城의 얼은 장성군의 정체성이므로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 第二回 河西 金先生 追慕 全國 漢詩白日場 開催

제 2회 河西 金先生 추모 전국 한시백일장이 2004년 4월 29일에 筆巖書院에서 개최되었다. 壯元에는 柳晏重, 次上에는 李淙榮, 朴炯梓 氏가 당선되었다. 本詩稿를 영인 발간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배부하였다. 序文은 愼思範, 跋文은 李炳玟이 썼다. 입상자와 壯元詩는 다음과 같다.

- 장 원 : 柳晏重
- 차 상 : 李淙榮, 朴炯梓
- 차 하 : 郭慶淳, 李潤福, 丁相豪
- 특별상 : 李任慶女史
- 참 방 : 10명, 가작 : 20명, 등외 300명

壯元詩

白口場開筆巖天
彬彬多上拜祠前
東方道學無雙壁
南國文章第一賢
麥洞清風千秋遠
卯山霽月百年連
澹翁出處人皆仰
青史芳名永世傳

필암서원 하늘아래 백일장을 열었으니
빈빈한 다사들이 사당앞에 배알했네
동방에서 도학으로 둘도 없는 보배요
남국에서 문장으로 제일가는 선생일세
백동의 맑은 바람은 천고에 멀고
난산의 개인 달은 백년토록 연했도다
담옹의 출처는 사람마다 모두 추앙하니
청사에 꽃다운 이름 오래도록 전하리라

▶ 高亨坤 筆巖書院長 別世

聽松 高亨坤박사가 지난 6월 25일 享年 99세로 別世하여 서울삼성병원에서 5日葬으로 영결식을 거행하고 남양주시 가족묘지에 안장되었다.

京城제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6대 국회의원, 한국철학회장, 학술원원로회원을 역임했던 故人은 필암서원 원장직을 맡아 왔었다.

필암서원에서는 柳漢相 집강, 朴來鎬 집강이 山仰會에서는 朴鍾達회장, 孔鍊雄총무, 金炳勳상임부회장, 金用淑부회장이, 門中에서는 남계 金相駿회장, 金英 문정궁 도유사, 金達洙대종회장 등 많은 분들이 문상하였다.

유한상, 박래호, 공연웅, 김용숙, 김병훈씨가 輓章을 써서 애도하였는데, 柳漢相 어론과 孔鍊雄 총무의 輓章은 다음과 같다.

輓 聽松博士高公 亨坤

憶昔筆巖講道遊 雲沈京洛人何去
忽驚今日此翁幽 星落漢江水自流
養德名傳千歲月 山頽樛折那堪說
行仁壽止百春秋 斜風細雨動涼微

地上友生 東江柳漢相 再拜哭輓

謹輓

聽松高亨坤博士之靈

耄齡厭世玆仙化
乘彼白雲至帝鄉
意志堅如松栢翠
情懷暖似蕙蘭香
清官品格千人仰
博學令譽百世芳
雖謂永眠哀且痛
慰幸德家餘蔭長

曲阜孔鍊雄再拜

▶ 長城 선비정신 체험 학습

筆巖書院 선비 학당 에서 교육 하다

필암서원 선비학당에서는 전라남도의 후원과 장성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장성군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장성 정보여고생을 대상으로 선비의 고장이라고 칭송받아 온 장성의 선비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교육을 필암서원 선비학당에서 실시하였다.

지난 5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실시된 교육에서는 필암서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佑東祠를 봉심한 후 전남도의회 李丙植의원과 文正公 도유사 金英교수가 “예절이란



무엇인가”를, 광주교대 金梓洙교수가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다 갖춘 河西 선생”을, 선비학당 朴來鎬 원장이 “우리 고을을 왜 선비고을이라고 하는가”를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에 773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장성 어린이 선비학당 열어

장성군에서는 지난 8월 2일부터 4일까지 군내 초등학생 4학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필암서원에서 ‘어린이 선비학당’을 열었다. 朴來鎬 선비학당 학장으로부터 하루 3시간씩 우리 고장 인물의 사상과 정신, 전통예절 등을 배웠다.

필암서원 佑東祠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 선생을 봉심하고, 朴守良선생의 白碑, 홍길동 생가와 전시관, 동학혁명 승전 기념탑, 봉암서원을 견학하였다.

▶ 河西先生 神道碑, 痛哭壇, 卵山碑 전라남도 지정 文化財로 등록되다

河西先生의 신도비, 통곡단, 난산비가 전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이 세 문화재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세우고, 주변을 정화하기로 했다.

▶ 尹絲淳 高大 명예 교수

河西의 생애와 사상 강연

광주대학교에서 10월 14일에 개최한 「湖南儒學에 대하여」란 학술강연회에서 윤사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河西 金麟厚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尹교수는 후인들의 인물평, 그의 생애, 문학

사상, 정치사상, 철학사상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河西 天命圖의 독특한 점을 강조하고, 당대의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先頭 境地’가 곧 河西 性理學의 경지라고 주장하였다.

▶ 한국書院연합회 창립 발기

한국서원 연합회 창립 발기대회가 지난 11월 15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있었다. 전국 600여 서원이 연합하여 서원의 역사적 기능과 현실적 역할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연합회장에는 최근덕 성균관장이 선임되었고, 박래호 필암서원 집장이 부회장에 선임되었다.

▶ 2003년 山仰會 정기 총회 개최,

회장 에 朴鍾達, 총무 에 孔鍊雄 선임

지난 2003년 12월 17일 광주향교 유림 회관에서 山仰會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 날 총회에서는 산양회 발족과 함께 산양회를 이끌어 왔던 安晋燾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2대 회장에 朴鍾達 총무에 孔鍊雄 선임하였다. 이어서 延世大 국학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연사로 초청되어 「河西詩의 道學的 性格」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조선조의 대표적인 道學詩人인 河西詩의 性格과 특성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 山仰會 活動事項

■ 임원회의

- 일 시: 2004년 5월 25일 오후6시
- 장 소: 전남도청앞(미가식당)
- 참석자: 회장 박종달 외7명
안진호, 김병훈, 김용숙, 공연웅,
박래호, 양희택, 김상원
- 안 건: 산양회 운영방안 협의

■ 임원단회의

- 일 시: 2004년 6월 3일 11시
- 장 소: 필암서원 청절당
- 참석자: 회장 박종달외 14명 참석
김병훈, 김영, 공연웅, 양희택,
이준영, 김병근, 이기석, 이병현,
박래호, 김승규, 라천주, 김병삼,
김상표, 김상원
- 안 건 1) 임원 및 서원 책임자 상견례
2) 산양회 회보 발간위원 구성 협의
3) 기타 사항 협의

■ 집행부 회의

- 일 시: 2004년 7월 14일 15시

- 장 소: 필암서원(청절당)
- 안 건 1) 회보 발간위원 구성
2) 학술발표회 및 장소 협의
3) 유적지 답사
4) 기타사항 협의

○ 회보 발간 위원 구성 협의

- 일 시: 2004년 7월 19일 오후5시
- 장 소: 광주문예회관(르네상스)
- 참석자: 부회장 김병훈, 총무 공연웅,
이병현, 김장수, 김상원
- 안 건: 회보 발간위원 구성 협의

■ 임원회의

- 일 시: 2004년 8월 26일 오후6시
- 장 소: 광주시 백운산 식당
- 참석자: 회장 박종달, 부회장 김용숙,
총무 공연웅, 재무 양희택,
간사 김상원 5명
- 안 건: 당면 추진 사항 협의

■ 임원단회의

- 일 시: 2004년 10월 22일 11시
- 장 소: 필암서원 청절당
- 참석자: 회장 박종달 외 12명
김용숙, 이근환, 김승규, 공연웅,
양희택, 이준영, 김병삼, 이기석,
라천주, 이세환, 김재수, 이병현
- 안 건 1) 산양회 임원 선임장 및 위촉장 수여
2) 산양회 총회 일정 및 장소 협의
3) 회보 발간 협의
4) 책임연구위원 활성화 방안
5) 기타 사항 협의

■ 회보발간 위원 협의

- 일 시: 2004년 11월 1일 오후5시 30분
- 장 소: 광주시 문예회관 옆(마당회관)

- 참석자:책임위원 김재수, 공연웅, 김장수,
이병현, 박래호, 김승규,
김동하, 김상원
- 안 건:회보 발간 분담 협의

▶ 本會 閔祐植 고문 한국 문단에 등단

韓國文壇 韓國詩社 5월호에 본회 閔祐植 고문이 86세 고령으로 등단함으로써 문단 사상 초유의 일로 화제를 뿌리고 있다. 평소 문학독서를 즐긴 閔고문은 저서를 4권이나 출간했는데, 수필집 「꽃과 거북이」로 문단에 등단하였다.

閔고문은 이번에 주어진 “한국문단 등단”이라는 명예는 나로서는 매우 기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당선은 내 생애 마지막 큰 선물이자 영광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 ‘河西 金麟厚 선생의 自敍傳의 詩에

대하여’ 장성 문화원에서 강연

장성문화원에서는 지난 4월 20일(화) ‘河西 김인후 선생의 자서전적 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광주교육대학교 김재수 교수(산앙회원)의 강연이 있었다. 神仙 사상이 표현된 道敎的인 詩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서 선생의 自敍傳의 詩인 「華表鶴」은 河西 선생의 心理的 자서전이라며, 「病鶴」은 하서 선생의 現實的 자서전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河西 先生의 道學사상에 흠이 될까 염려하여 이 분야를 금기시해 왔으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하서 선생의 문학과 사상의 깊이와 넓이를 한 층 더 해 준다고 주장했다.

▶ 文正公 大宗孫 金鎭國 別世

文正公 대종손 김진국씨가 2004년 7월 8일(음 5월 21일)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宗中의 많은 분들과 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선영에 안장하였다.

▶ 본회 고문 南溪 金相駿 별세

본회 고문인 김상준 삼양염업사 명예회장이 9월 1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삼양사의 창업자인 수당 김연수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을 금융 및 기업계에 몸담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원로 경제인이다. 특히 선조인 河西선생의 선양사업에 크게 공헌했으며, 본회에도 적극적인 후원을 하였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선친 秀堂 김연수 공의 묘 아래에 안장되었다.

▶ 흠재(欽齋)金炳勳 부회장 별세

2004년 8월 8일(음 6월 23일) 山仰齋 부회장인 김병훈씨가 별세하여 산앙회원, 필암서원 집강, 친지와 일가 친척이 애도하는 가운데 장례를 거행하였다.

늡음과 낡음

곱게 늡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곱와 보입이다.

늡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늡어가는 이들은 늡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늡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늡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 밖에는 아무것도 낡지 않습니다.

늡음이 곧 낡음 이라면
삶은 곧 '죽어갸' 일 뿐입이다.

늡어도 낡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늡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농익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늡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늡었으나 새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었으나 쇠잔한 인격입이다.

곱은 낡아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늡는 것입니다.

곱이 늡어 갈수록 속은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늡는 것입니다.

새로움과 낡음은 삶의 미추를 갈라 놓습니다.
글자 한 획만 다른 것이 아닙이다.

누구나 태어나면 늡어 가는 것이지요..

몸은 비록 늡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 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늡지 않습니다..

젊게 보이더라도 추하게 산다면
그것은 죽은 삶과도 갸겠지요..

곱게 늡어 간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이다..

멋모르고 날뛰는 청년으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듬 태어나는 중년의 삶이
더욱 더 아름답습니다..

행여 늡는 것이 두려워 서럽습니까?
마음이 늡기 때문입이다..

마음을 새롭게... 새로움으로 바뀌 보세요..
늡어가는 나이테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라는 것이겠지요...

- 좋은글 중에서-

山仰會 任員 名簿

<職名, 姓名, 本貫, 雅號, 住所, 電話番號>

山仰會 任員 名簿

- 會長, 朴鍾達, 忠州, 松石
광주시북구우산동631-1 현대A 105동 403호
T. 062-262-1779, 011-361-6779
- 常任 副會長, 金容淑, 蔚山, 素巖
광주시 남구 진월동 풍림A 101동 608호
T. 011-603-5724
- 副會長, 高永斗, 長興, 三勉 (光州, 全南)
광주시남구 이장동 310
T. 062-674-0007, 011-601-0770
- 副會長, 李昆煥, 仁川, 然哉 (大邱)
대구시 북구 구암동789 부영A 506동 203 호
T. 053-321-4717, 011-9570-3717
- 副會長, 李夏永, 全義, 紹强 (全北)
전북 완주군상관면신리 지큐빌 107동1101호
T. 063-282-7608, 011-9640-7608
- 副會長, 趙鍾業, 漢陽, 鶴山 (大田, 忠南)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새미래A811동401호
T. 042-825-9981
- 總務, 孔鍊雄, 曲阜 瑞山
광주광산구월계동757-5 모아A 102동 702호
T. 062-973-3390, 016-612-3393
- 財務, 梁熙澤, 南原, 平齋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필암
T. 061-393-5874, 016-9646-5838
- 監査, 金柄槿, 蔚山, 仁松
광주시 서구 화정1동 현대A 103동 705호
T. 062-373-2599, 011-600-2599

- 監査, 李準泳, 慶州, 誠軒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129-5
T. 061-395-0755, 010-4633-1311
- 文正公 都有司, 金英, 蔚山
광주시 서구 양동 삼익A 3동 107호
T. 062-369-6800, 019-621-6800

山仰會 幹事 名簿

- 事務幹事, 金炳三, 蔚山, 善齋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필암
T. 061-394-0833
- 總務幹事, 金相元, 蔚山, 台岩
장성군 읍 충무2동 973-13
T. 061-392-2804, 019-618-2804
- 組織幹事, 李沂錫, 光山, 栢軒
장성군 읍 청운 2동 120-11
T. 061-393-2008, 011-627-1856
- 地域幹事, 羅天柱, 錦城, 鳳耕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T. 061-394-2315, 016-684-2315
- 地域幹事, 申文秀, 高靈, 晩松, 月汀
전주시 완산구 서 서학동 53-2 월정서예원
T. 063-282-4427, 016-627-4427
- 地域幹事, 尹柱男, 坡平, 克齋
김제시 백학동 141-1
T. 063-546-0850, 016-9899-0851
- 地域幹事, 李世煥, 固城, 葛川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393-1 갈천서예원
T. 063-285-7755, 011-670-7855

責任 研究 委員

<分科別, 姓名, 本貫, 雅號, 住所, 電話番號>

- 道學, 吳鍾逸, 同福, 臥龍
전주시 완주군 효자동3가 전주대학교
T. 063-220-2306
- 道學, 朴來鎬, 泰仁, 蘆江
장성군 읍 충무2동 973-17
T. 061-393-8880, 019-832-4562
- 節義, 羅俊洙, 羅州, 石亭
광주시 북구 문흥동 920 대주아파트 205-1501
T. 062-262-6815, 011-9667-6815
- 節義, 金鎭雄, 蔚山, 晚巖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현대아파트 110-2003
T. 051-265-4237, 011-565-4237
- 文藝, 李炳玟, 光山, 清下
장성군 읍청운 1동
T. 061-392-1407, 011-9440-1401
- 文藝, 金梓洙, 蔚山
광주시 남구 주월1동 1206-3
T. 062-673-6395, 016-705-6395
- 文藝, 金長洙, 善山, 晨溪
광주시 동구 지산 2동 342-52
T. 062-232-5577, 062-622-5577

산양회 회보발간 편집위원

<職位, 姓名, 住所, 電話番號>

- 委員, 金梓洙
광주시 남구 주월동 1동 1206-3
T. 062-673-6395, 016-705-6395
- 委員, 孔鍊雄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757-5 모아A 102동702호
T. 062-973-3390, 016-612-3393
- 委員, 金長洙
광주시 동구 지산 2동 342-52
T. 062-232-5577, 016-622-5577
- 委員, 李炳玟
장성군 장성읍 청운1동
T. 061-392-1407, 011-9440-1401
- 委員, 朴來鎬
장성군 장성읍 충무2동 970-11
T. 061-393-8880, 019-832-4562
- 委員, 金勝圭
광주시 남구 백운동 현대A 103동 306호
T. 062-676-0902, 019-9669-0902
- 委員, 金東河
광주시 북구 각하동 금호타운 1동 706호
T. 062-261-4334, 011-9609-4334
- 委員, 金相元
장성군 장성읍 충무2동 973-17
T. 061-392-2804, 019-618-2804

筆巖書院 山仰會員 名單

◎ 서울

<姓名, 本貫, 雅號, 電話番號>

- 金成勳, 光山, 月浦 T. 02-549-7878
- 金泳仲, 蔚山, 又湖 T. 02-333-2868
- 邊溫燮, 黃州, 元谷 T. 016-342-2288
- 朴秉濠, 密陽 T. 011-740-0144
02-2634-5144
- 金相燁, 蔚山 T. 02-3481-8436
- 許鎬九, 金海, 重山 T. 011-9894-4733
02-912-4733
- 金泰守, 蔚山, 松鹿 T. 011-673-4167
- 金在億, 蔚山, 三洋 T. 011-302-7012
- 吳錫源, 海州, 霞耘 T. 02-744-0303
02-760-0207

◎ 경기

- 高洪錫, 長興, 琴軒 T. 018-224-7822
- 田光弘, 潭陽 T. 011-9654-2723
- 민방식 T. 031-451-2595

◎ 대구

- 李昆煥, 仁川, 然哉 T. 011-9570-3717
053-321-4717

◎ 부산

- 金鎮雄, 蔚山, 晚巖 T. 011-565-4237
- 金熙明, 光山, 誠菴 T. 017-560-4586
- 高麟祚, 濟州, 仁谷 T. 051-783-5924
011-9894-4733

◎ 충남

- 任龍淳, 豐川 T. 041-566-0754
011-9080-0033
- 鄭性喜, 晉州 T. 041-571-8048
017-316-8048

◎ 경북

- 鄭炫柁, 草溪, 素浪 T. 011-555-7991

◎ 대전

- 宋東憲, 恩津, 石泉 T. 042-284-0161
- 趙鍾業, 漢陽, 鶴山 T. 042-825-9981
011-9810-6034

◎ 전북

- 崔宗春, 全州, 春塘 T. 011-9626-9501
- 金炳寬, 蔚山, 安松 T. 063-652-5180
- 金炳崙, 蔚山 T. 011-678-2051
- 崔四鉉, 全州 T. 011-9991-9153
- 鄭雲炎, 迎日, 斗下 T. 018-285-3900
- 金鳳洙, 蔚山 T. 063-274-3821
- 劉一鍾, 江陵, 河南 T. 011-9923-3497
- 金炳閔, 蔚山, 愚學 T. 063-223-9729
- 丁熒均, 義城, 春臺 T. 016-622-9146
- 尹柱男, 坡平, 克齋 T. 016-9899-0851
- 金鍾鶴, 光山, 壘岩 T. 063-546-9304
- 申文秀, 高靈, 月汀 T. 016-627-4427
- 金鍾大, 慶州, 春山 T. 063-286-5698
- 金鍾懷, 慶州, 清谷 T. 011-9437-8115

- 李夏永, 全義, 紹强 T. 063-282-7608
011-9640-7608
- 安在格, 順興, 行山 T. 017-606-3389
- 林東翼, 羅州, 雲湖 T. 019-489-6697
- 金鍾燮, 蔚山, 中軒 T. 063-221-4592
- 高南奎, 長興, 秀山 T. 063-562-4277
- 金炳燭, 蔚山, 仁堂 T. 063-855-2321
- 李世煥, 固城, 葛川 T. 011-670-7855
063-285-7755
- 金炳權, 蔚山, 光彬 T. 011-655-0018
- 朴金奎 T. 063-851-5056
- 金錫基, 淸州, 淸史 T. 063-564-2302
- 安珍模, 順興, 竹堂 T. 063-635-3154
- 楊萬鼎, 南原, 玄谷 T. 063-288-3646
- 金載元, 蔚山 T. 063-267-6645
- 權熙文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T. 063-220-2303
- 安泰錫 완산구 태평동 83-29
- 吳鍾逸, 同福, 臥龍 T. 063-220-2303
전주대교수
- 金彭洙, 蔚山, 莘浩 T. 011-681-0160
063-230-0160
- 李康善, 全州, 賢庵 T. 063-222-5921
- 金仁煥, 慶州 T. 019-686-3977

◎전남

- 金載洪, 蔚山, 後山 T. 011-9603-3445
- 文在國, 南平, 心山 T. 061-852-8474
- 李文甲, 仁川, 松齋 T. 011-647-2029
- 吳永在, 海州, 雪竹 T. 061-433-5139
- 金吉雄, 金寧, 瑞興 T. 011-609-1197
- 金正泰, 金海 T. 011-604-1077
- 金圭浩, 慶州, 養浩 T. 061-372-7253
- 趙鏞敏, 咸安, 雲菴 T. 062-222-6474
061-337-8850
- 梁柁, 南原, 省齊 영광법성면 월산리 405
- 丁宗杓, 羅州, 慕蓮 T. 061-363-3715
- 金永鎬, 光山, 春園 T. 061-362-3564
- 馬洪淑, 長興, 芳原 곡성 석곡면 방송리
- 林滿澤, 羅州, 淵齊 T. 011-347-1039

- 許津, 陽川, 隱谷 T. 061-363-5065
- 金炳椀, 蔚山 T. 061-382-8619
- 沈在植, 靑松, 擇山 T. 011-9604-6127
- 沈雲植, 靑松, 雲齊 T. 061-382-7847
- 李吳檣, 全州, 肯堂 T. 016-657-5353
- 朱奎南, 新安, 忍堂 T. 011-601-2153
- 李根宰, 全州 T. 019-312-5646
- 李泳福, 公州, 雲亭 T. 062-228-9657
- 朴奇鎬, 密陽, 又玄 T. 061-373-0518
- 梁亨根, 濟州, 春坡 T. 061-382-7138
- 梁仲鎬, 濟州 T. 061-382-7588
- 朴成鎬 담양 대전면 덕진리
- 朴龍巖, 密城, 誠濟 T. 061-473-4606
- 宋在烈, 礪山, 春圃 T. 061-833-3937
- 朴文鎬, 密陽, 友堂 T. 061-857-1936
- 吳翼星, 濟州, 顧南 T. 061-362-8884
- 任根亨, 豐川, 正齋 T. 016-9676-3216
- 宋 鎭, 洪州, 性齋 T. 011-649-0134
- 李雲休, 光山, 竹下 T. 061-372-4471
- 金平浩
- 金鎭圭 곡성옥과금의537
- 朴元澤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80-19
- 張璉燮, 仁同, 敬堂 T. 061-322-2783
- 金炳國, 蔚山 T. 061-362-5065
010-2216-5065

- 白達淳, 水原, 星齋 장흥군 용산면 상금리 642
- 宣炳國, 寶城, 桐樵 T. 061-852-1274
011-618-5118
- 韓永弘, 淸州, 山南 T. 011-9457-6377
- 尹泳烽, 海南, 海亭 T. 061-432-0079
011-9609-2088
- 朴性學, 珍原 T. 061-853-2267
011-749-0267

◎장성

- 金炳坤, 金海, 靜山 T. 061-394-1272
- 林載珩, 兆陽 T. 011-614-8835
- 邊日燮, 黃州, 德齋 T. 011-9440-0627
- 鄭鶴基, 河東, 礎亭 T. 019-605-2804

- 李五範, 咸平, 愍庵 T. 061-394-2412
- 金炳孝, 蔚山, 東岩 T. 016-9810-8248
- 金炳三, 蔚山, 善齋 T. 061-394-0833
- 金洙煥, 金海, 龍岡 T. 016-458-4700
- 金鎔善, 蔚山, 栗亭 T. 019-692-5222
- 金相杓, 蔚山, 加平 T. 019-625-5115
- 林基玉, 兆陽, 南隱 T. 061-392-3602
- 金麟奎, 蔚山, 栢堂 T. 011-638-4394
- 金容益, 蔚山, 東隱 T. 019-9160-7621
- 金南圭, 蔚山, 愚耕 북이면 사거리 172
- 金在洙, 晉州, 貞軒 T. 061-394-2242
- 奇宇天, 幸州, 松隱堂 T. 061-394-2808
- 邊東焄, 黃州 T. 011-666-8113
- 劉載述, 江陵, 薰松 T. 061-392-8987
- 李載洙, 咸平, 鶴園 T. 061-394-2306
- 金福源, 商山, 湖隱 T. 011-219-1969
- 張在賢, 仁同 T. 011-603-9142
- 劉載善, 江陵, 林阜 T. 019-640-4820
- 邊東銘, 黃州, 虎巖 T. 061-393-1157
- 邊甲哲, 黃州 T. 019-430-5204
- 金仁泳, 金海, 春圃 T. 061-394-3344
- 宣在奕, 寶城, 笑巖 T. 019-9146-3934
- 金源明, 光山, 雲岩 T. 016-609-2077
- 羅國柱, 錦城, 淸軒 T. 019-394-4699
- 李沂錫, 光山, 栢軒 T. 011-627-1856
- 宋炳植, 礪山, 松林 T. 019-9164-5391
- 李相鏞, 慶州, 碧松 T. 017-602-0436
- 金炳倫, 蔚山, 京巖 T. 011-643-8964
- 金應烈, 晉州, 漁雲 T. 061-394-1937
- 邊夏燮, 黃州, 梅河 T. 011-9718-2991
- 金容淳, 光山, 龍汀 T. 011-647-2278
- 李準泳, 慶州, 誠軒 T. 010-4633-1311
- 邊凡錫, 黃州, 次菴 T. 019-601-2377
- 韓太燮, 淸州, 柳雲 T. 017-248-2175
- 金漢植, 光山, 愼菴 T. 061-393-5149
- 金相德, 蔚山 T. 061-392-7511
- 梁熙澤, 南原, 平齋 T. 016-9646-5838
- 金相元, 蔚山, 台岩 T. 019-618-2804
- 朴來鎬, 泰仁, 蘆江 T. 061-393-8880
- 金相基, 蔚山 T. 017-650-5721
- 羅天柱, 錦城, 鳳耕 T. 061-394-2315
- 金道中, 蔚山, 中山 T. 011-605-9754
- 金局泰, 蔚山, 坪軒 T. 011-615-5595
- 柳在甲, 文化, 森隱 T. 016-640-2131
- 朴東熙, 密陽, 松岩 T. 016-9340-7276
- 李炳玟, 光山, 淸下 T. 061-392-1407
- 金盛洙, 蔚山, 牧井 T. 061-393-6771
- 金炳千, 蔚山, 湖巖 T. 061-393-1298
- 朴判湧, 密城, 潘水堂 T. 063-563-7908
061-393-7575
- 邊炳淵, 黃州, 強庵 T. 061-393-1141
011-615-5595
- 金泳豐, 蔚山, 白松 T. 011-645-7445
- 高光玉, 長興, 牛峰 T. 061-394-2079
- 金鍾權, 蔚山 T. 061-392-6600
- 高世中, 長興, 松谷 T. 061-394-1176
- 奇梈舒, 幸州, 門澗 T. 017-602-4579
- 崔南周, 全州 T. 018-612-0574
- 金湊, 蔚山 T. 017-714-4774
- 柳壽煥, 文化 T. 011-604-7975
- 金祥中, 蔚山, 呂古 T. 061-394-4709
- 金炳棺, 蔚山 T. 016-433-7544
- 奉炳國, 河陰, 友松 T. 011-427-2309
- 金道今, 金海, 鷺崗 T. 011-9890-5661
- 朴來說, 泰仁, 遠齊 T. 061-392-3252
- 金昌洙, 光山, 和堂 T. 061-393-5151
- 鄭鶴基, 河東 T. 019-605-2804
- 邊東森, 黃州 T. 061-393-1362
- 朴鴻相, 珍原, 松泉 T. 061-392-1024
011-635-8095

◎ 광주(동구)

- 奇百燮, 幸州, 牛峰 T. 062-528-0993
- 崔相玉, 全州, 裕堂 T. 062-222-1357
062-527-8818
- 秋三得, 秋溪, 義齋 T. 062-223-8836
- 安管吾, 竹山, 次山 T. 062-512-7475
- 南兌龍, 宜寧, 松泉 T. 062-227-6703
062-227-4904

- 申亨澈, 平山, 立軒 T. 062-672-7008
062-227-6286
- 宋澈, 洪州, 海石 T. 017-614-9189
- 趙炳春, 金堤, 愚溪 T. 017-603-4090
- 金相憲, 蔚山, 德齊 T. 011-9620-5216
- 李丰珩, 全州, 松坡 T. 062-223-5480
062-222-3130
- 張斗錫, 興德, 海觀 T. 062-227-9004
062-224-6364
- 金長洙, 善山, 晨溪 T. 016-622-5577
062-232-5577
- 柳晏重, 文化, 春溪 T. 017-618-6709
- 朴景來, 珍原, 綠洋 T. 062-223-2266
- 梁原豪, 濟州, 松軒 T. 062-232-8716
062-223-0938
- 양해철, 濟州 T. 011-611-9010
- 梁二鎬, 濟州 T. 017-610-0877
- 梁在斗, 濟州, 石晶 T. 062-223-7477
- 梁平默, 濟州 산수1동 동진맨션 3-204호
- 閔祐植, 驪興, 守菴 T. 062-228-6767
- 金鍾灝, 金海, 南松 T. 016-9345-4407
- 梁海根, 濟州, 玉井 T. 011-617-3759
- 崔基洪, 慶州, 金沙 T. 062-223-0135
- 고임순 광주시동구지산2동342-52

◎광주(서구)

- 曹相烈, 呂寧, 厚堂 T. 016-606-5600
062-233-1313
- 尹炳甲, 驪州 T. 062-369-1390
016-9565-1390
- 曹基元, 昌寧, 東川 T. 062-369-8816
017-603-8816
- 林奉基, 羅州, 晚秋 T. 062-363-7855
017-635-7855
- 尹淙根, 驪州, 義齊 T. 062-366-4311
017-627-7008
- 尹漳鉉, 海南, 一沙 T. 016-658-5357
- 姜仲錫, 晉州, 梅亭 T. 062-371-0108
017-609-0108

- 李啓善, 咸平, 福山 T. 062-374-4190
- 奇世樂, 幸州, 滿齋 T. 062-375-4348
011-609-6965
- 吳世圭, 海州, 修岡 T. 019-371-6653
- 柳鍾相, 高興, 玄供 T. 011-9865-3930
- 鄭尙允, 光州, 源齋 T. 062-372-0889
011-624-0277
- 金相德, 蔚山 T. 062-381-7799
- 宋河潤, 礪山, 曉江 T. 011-642-9525
- 金炳槿, 蔚山, 仁松 T. 062-373-2599,
018-600-2599
- 羅季柱, 鎭城, 安石 T. 062-381-1510
- 李汀圭, 星州, 青坡 T. 011-628-1372
- 李載英, 咸平, 竹山 쌍촌1동 328-23
- 宋寬鍾, 礪山, 전남대교수 T. 062-521-5850
- 安東教, 竹山, 전남대교수 T. 062-376-5254

◎광주(남구)

- 金容俊, 光山 T. 019-662-2052
- 梁會亨, 濟州, 石俸 T. 017-603-9353
- 金正熙, 淸道, 仁山 T. 062-676-0305
- 羅性洙, 羅州, 道川 월산4동 907-9
- 吳仁均, 羅州, 鰲山 T. 011-618-0005
- 金杜洙, 善山, 松隱 T. 062-363-6023
- 安基奉, 順興, 松軒 T. 011-624-3107
- 梁在東, 濟州, 松雲 T. 062-671-4199
016-652-2887
- 金宜洙, 蔚山 T. 011-601-7383
- 金容淑, 蔚山, 素巖 T. 011-603-5724
- 金鍾會, 金海, 省齋 T. 062-651-1747
019-9147-1747
- 宋泰瑞, 礪山, 雪岡 T. 062-672-6178
- 朴泰根, 陰城, 西山 T. 062-941-2911
011-603-1252
- 金勝圭, 蔚山, 仁潭 T. 062-676-0902
019-9669-0902
- 吳炳祚, 羅州, 省齋 T. 062-571-1855
011-636-5299
- 金容河, 蔚山 T. 062-530-3840
016-612-2103

- 高永斗, 長興, 三勉 T. 062-674-0007
011-601-0270
- 金相焯, 蔚山 T. 062-676-3881
016-608-8183
- 金沂洙, 蔚山 방림동 삼익A 11-303
- 宋炫珠, 新平, 雨山 T. 011-416-5781
- 河應善, 晉州, 松岩 T. 062-364-4262
011-279-6441
- 金梓洙, 蔚山 T. 062-673-6395
016-705-6395
- 李潑, 星州, 石泉 T. 062-671-2677
- 梁鎭珉, 濟州, 仁谷 T. 062-672-1518
- 金基哲, 春江 백운동 벽산A 101-1202
- 金병철 방림동 라인효친 208-1110
- 申斗千, 平山, 海松 T. 062-676-8752
018-642-7968

◎광주(북구)

- 金晟洙, 蔚山 T. 062-522-3985
- 奇共度, 幸州, 養正 중흥동 711-3
- 奇雲燮, 幸州, 惺菴 T. 062-263-8054
016-686-8054
- 金炳大, 蔚山, 芝村 T. 062-574-4928
- 愼口範, 居呂, 松坡 T. 062-521-6126
- 曹龍根, 昌寧, 草菴 T. 062-525-2999
- 羅俊洙, 羅州, 石亭 T. 062-262-6815
011-9667-6815
- 李洪柱, 全州, 顧菴 T. 062-529-1314
018-602-4773
- 鄭安鎭, 晉州, 湖堂 T. 062-512-2996
- 朴東圭, 密陽, 松圃 T. 062-523-7731
- 金熙洙, 蔚山, 清蔭 T. 062-512-0222
- 柳漢相, 文化, 東江 T. 062-529-1197
- 金鎭云, 蔚山, 木亭 T. 062-521-8568
019-628-8568
- 朴鎭龍, 順天, 素田 T. 062-672-7009
016-642-9575
- 金鏞植, 光山, 春溪 T. 062-512-6372
- 金鍾云, 蔚山, 海岩 T. 062-261-7676

- 011-602-2091
- 金榛洙, 蔚山 T. 016-603-2939
- 金文珍, 蔚山, 南松 T. 062-528-7001
062-521-2228
- 金官中, 蔚山 T. 011-606-9699
- 金昌洙, 蔚山, 峴松 T. 062-521-0371
019-616-0372
- 金鎭午, 蔚山, 星谷 T. 062-524-6379
- 金寅洙, 蔚山 T. 062-524-9766
016-779-9766
- 沈愚慶, 青松, 東谷 T. 011-624-8932
- 柳洪南, 高興, 修巖 T. 011-9766-4150
- 金相, 蔚山, 鮮山 T. 062-521-2702
019-345-2702
- 孔炳哲, 曲阜, 林泉 T. 062-522-5100
011-624-0030
- 徐明源, 達成, 清灘 T. 062-232-1153
062-512-2914
- 朴炯浩, 珍原, 竹巖 T. 062-512-5382
- 金在俊, 蔚山, 清軒 T. 016-752-5286
- 金容大, 蔚山, 德川 T. 016-612-3349
- 金炳琰, 蔚山, 隱松 T. 062-529-7629
019-9166-6345
- 金乙洙, 蔚山, 遜雲 T. 062-265-3650
011-620-0900
- 金京洙, 蔚山 T. 062-523-2963
016-602-2963
- 金鍾桓, 蔚山, 丹軒 T. 062-512-3003
016-603-0070
- 金治中, 蔚山, 月江 T. 062-523-2163
- 朴鍾達, 忠州, 松石 T. 062-262-1779
- 閔京鎬, 驪興, 龍池 T. 062-266-8961
- 梁吉鎬, 濟州 T. 062-672-2646
011-603-8984
- 梁홍일, 濟州 T. 062-251-1183
011-612-5183
- 梁太鎬, 濟州 T. 062-521-8263
- 金炳基, 蔚山 T. 019-291-3421
- 金靈洙, 蔚山 T. 061-393-2874
019-373-8235

- 柳鎮圭, 文化, 修雲 T. 062-361-4580
017-615-8298
- 金宅洙, 蔚山, 嘉山 T. 062-523-7992
011-636-7992
- 羅呂淳, 錦城, 撫山 T. 062-527-0461
- 金正洙, 蔚山, 西雲 T. 062-525-7385
- 金鐘得, 金海, 聖下 T. 062-262-7868
- 許利鍾, 泰仁, 尙山 T. 062-261-5300
- 孔庚鎬, 曲阜, 皓隱 T. 018-610-1877
062-416-1779
- 宋 鎮, 洪州, 性齋 T. 062-513-3961
011-649-0134

◎광주(광산 구)

- 李官九, 全州, 南谷 T. 062-952-8062
- 金永穆, 蔚山, 小軒 T. 062-956-0138
- 宋炳人, 礪山, 朽軒 T. 062-943-6581
- 金商順, 慶州, 復初 T. 062-944-2394
- 李宰喆, 全州, 道隱 T. 019-625-7517
- 曹瑄培, 昌寧, 惺軒 T. 062-943-9898
- 朴溱夏, 密陽, 松軒 T. 017-605-0578
- 梁哲承, 濟州, 松齋 T. 062-941-9805
- 奇世潭, 幸州, 東隱 T. 062-952-8011
011-618-8014
- 李漢秀, 全義, 義松 T. 062-952-8873
011-9613-9496
- 李德在, 光山, 湖亭 T. 062-953-2122
019-228-8881
- 宋榮起 T. 062-944-1469
- 孔鍊雄, 曲阜, 瑞山 T. 062-973-3390
016-612-3393

◎海外

- 金炳均, 蔚山 T. 001-904642-8949
8226 Bahia BIna CT Jacksonville FL32256

신입 회원 주소록

<姓名, 本貫, 雅號, 住所, 電話番號>

- 宣炳國, 寶城, 桐樵
전남 보성군 문덕면 동산리
T. 011-618-5118, 061-852-1274
- 韓永弘, 淸州, 山南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450-2
T. 011-9457-6377
- 尹泳烽, 海南, 海亭
강진군 도암면 지식리
T. 011-9609-2088, 061-432-0079
- 許鎬九, 金海, 重山
서울 성북구 정능4동 대우아파트120동1404호
T. 02-912-4733, 011-9894-4733
- 高麟祚, 濟州, 仁谷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548
T. 011-835-5924, 051-783-5924
- 李康善, 全州, 賢庵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8 현대아파트106-809
- 金仁煥, 慶州
전북 정주시 연지동 350
T. 019-686-3977
- 朴性學, 珍原
전남 보성군 겸백면 사곡리 422
T. 061-853-2267, 011-749-0267
- 庾東均, 茂松, 海史
광주시 남구 봉선 2동 삼익A 204-1006
T. 062-672-4422, 017-601-4422
- 민방식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진달래아파트 103-209호
T. 031-451-2595

… 入會를 환영합니다 …

<姓名, 本貫, 雅號>

宣炳國	宝城	桐樵	(보성군)
韓永弘	淸州	山南	(광양시)
尹泳烽	海南	海亭	(강진군)
許鎬九	金海	重山	(서 울)
高麟祚	濟州	仁谷	(부산시)
李康善	全州	賢庵	(전주시)
金仁煥	慶州		(정주시)
朴性學	珍原		(보성군)
庾東均	茂松	海史	(광주시)

이상 2004. 10. 30까지

… 特別會費 誠金內譯 …

光州	북 구	朴鍾達	忠州	松石	貳百萬원	山仰會長
釜山	해운대	高麟祚	濟州	仁谷	參拾萬원	
光州	동 구	崔相玉	全州	裕堂	貳拾萬원	
光州	서 구	曹相烈	昌寧	厚堂	壹拾萬원	

* 성금을 보내주신 분에게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알림

1. 본회 제11차 학술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바랍니다.

- 일 시: 2004년 12월 10일(금요일) 10:00
- 장 소: 광주향교 유림회관(광주시 남구 구동 22-3)
- 주 제: 河西의 經濟思想
- 발 표 자: 이헌창(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 원고 모집안내

- 하서선생의 遺文遺詩를 비롯하여 학문과 사상에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함.
- 보내실곳: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 회원 여러분의 애경사, 선행, 미담 등 특별한 동정을 실어 '산양회 사랑방'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천을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회비 입금 계좌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장성축산농협 175809-52-099266 (예금주: 필암서원 산양회 김용숙)

5. 입회절차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축협 175809-52-099266)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 하시고 전화(019-618-2084 김상원)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本貫:	雅號:	生年月日:
住所: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現職:	學歷 및 經歷: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근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켜 선양하여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산양계 재발기 준비위원회(위원장 安普吾)를 구성하여 高亨坤 필암서원원장을 비롯한 서원집강, 崔昌圭 당시 성균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유림 230여명이 2001. 8. 22일 필암서원에서 모임을 갖고 山仰會로 개칭하여 재발기 하였던 바 그후 활동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2001. 8.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아래 安普吾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0.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인종승화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鎭雄씨(서울대 공대졸, 부산거주, 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집강)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의 주제 아래 尹絲淳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1호) 1000부를 발행配布.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俊圭 전남대 명예교수(담양 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普吾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을 하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 2003. 6.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2호) 1,500부를 발행配布.
- 2003. 7. 1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의 강회를 여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무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하였음.
- 2003. 12. 10일 山仰會報 제3호 1500부를 발행 배포.
- 2003.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安普吾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 회장에 朴鍾達, 새 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악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